

기억에 남을 공연 ·전시·체험 한곳에

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남원시 광한루원,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'제88회 춘향제'가 열린다. 올 춘향제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준비돼있 다. 이에 본보는 춘향제에서 보고 즐길수 있는 공연과 전시, 체험거리를 하나로 모아봤다



남원창국 '춘향만리(春香萬里)'가 춘향제를 맞아 특별공연으로 펼쳐진다.

남원시립국악단은 제88회 춘향제 기간인 오 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오후 8시 춘향테마파크 관아(동헌)에서 창극 '춘향만리'를 특별공연 한다. 이 기간에는 관람석 전체를 50% 할인해 서 판매한다.

남원시립국악단은 "춘향제 기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대표 브랜드인 춘향만리 를 선보이기 위해 특별공연을 편성했다."며 "판소리 춘향가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춘 -향민리와 함께라면 더 의미 있는 춘향제가 될 것"이라고 전했다.

이 작품은 남원의 늙은 기생 청향의 사랑 이 야기가 소리꾼 박남을 만나 판소리 '춘향가' 로 탄생하는 이야기를 극중극 형식으로 제작 해 기존의 춘향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 을 더했다. 전통 판소리 김세종제 성우향 바 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판소리의 깊은 매력 을 느낄 수 있으며 양반의 권위를 풍자하는 방자의 언어유희와 박남의 능청스러운 연기, 재치 있는 입담으로 공연 중 관객들의 웃음소 리가 끊이지 않는다. 공연 전반에 흐르는 민 속악 연주는 극의 감칠맛을 내며 현장감을 더

춘향가의 백미 사랑가 대목은 판소리와 군 무가 어우러져 단연 일품이었다. 닿을 듯 닿 지 않는 춘향의 교태와 애 타는 몽룡의 모습 이 군무와 어우러져 꽃과 나비처럼 아름답게 그려졌다. 어사출두 대목은 자진모리 장단의 경쾌한 리듬으로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통쾌하 게 담아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.

기존 춘향전에서 새로운 상상력 더하다

남원창극 '춘향만리'

내일부터 21일까지 춘향테마파크서 전석 50% 할인

사전공연 '뜨락음악회'도 오후 7시부터 시작 된다. 남원시립국악단 기악부 단원들이 버스 킹 형식으로 관객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국 악에 재즈, 락, 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퓨전국악을 공연한다.





'춘향제 불꽃향연' , 남원의 밤하늘을 아름답게

오늘 밤 개막식 끝난 직후

이번 춘향제에서는 춘향사랑과 축제 향기를 찾아서 오는 모든 연인과 가족들을 화려한 불 꽃으로 맞이하려 한다.

춘향제의 불꽃향연은 광한투 앞 승사교에서 18일 오후 9시 30분경 춘향제 개막식이 끝남

과 동시에 시작하여 약 12분간 밤하늘을 아름 답게 수놓을 것이다.

특히, 올해 불꽃행사는 예년보다 폭죽 수와 시간을 늘려 다양한 테마 불꽃을 선보여, 꺼 지지 않는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야기를 기억 하며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 록 할 것으로 보인다.



맨손으로 잡자… 미꾸리 체험 · 홍보

남원시농업기술센터(소장 이환중)는 남원 미꾸리 체험 및 홍보행시를 오는 18일부터 22 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십수정 인근 춘향제 행 사장에서 열린다.

춘향제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이 행사는 미 꾸리를 맨손이나 뜰채로 잡아보는 체험과 잡 은 미꾸리를 제공하는 용기와 사료를 이용해 집에서 길러보는 체험을 진행한다.

명인 명창의 특별무대

'더The광한루'

18 · 19 · 22일 광한루각서 사전예약 유료로 진행

전통국악의 정수를 선사하는 대한민국 명인·명창·명고들의 특별한 무대인 '더 광한투'공연이 제88회 춘향제에서 마련된

춘향제전위는 10일 제88회 춘향제의 대 표 명품공연인 '더 광한투'를 오는 18, 19, 23일 3일 동안 광한루각에서 올해 처음으 로 사전예약제를 통한 유료공연을 펼친다

18일 1회차 공연에는 서울남산국악당 한 덕택 예술감독의 해설로 이난초 명창의 춘 향가, 김일구 명인의 이쟁 연주가 꾸며진

19일 2회차 공연은 우석대 국악과 심인 택 교수의 해설로 김수연 명창의 춘향가, 원장현 명인의 대금·거문고 연주가 진행

22일 3회차 공연에는 국립민속국악원 지 기학 예술감독의 해설로 윤진철 명창(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)의 심청가, 강정숙 명인의 가야금 연주가 무 대를 장식한다. 또한 모든 공연에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보유자 김청 만 명고의 장단이 함께 한다.



개성있는 퍼레이드와 이색적인 퍼포먼스… '길놀이 축제'

19일 진행 행렬구간 1.7km

제88회 춘향제 대표행사중 하나인 길놀이가 19일 진행될 예정이다. 행 렬 구간은 약 1.7km로 용성초등학교 에서 출발해 SC제일은행 사거리~국 민은행 사거리~광한루원 서문~광 한루원 앞 방지춤판 무대이다.

소년국악예술단 여민락외 3팀과 춘향선발대회 수상자 카퍼레이드, 외부 초청 전문 퍼포먼스팀까지 30여 개팀 1천명이 길놀이 행진에

아울러, 남원의 대표 문화 컨텐츠 인 신관사또 부임행차와 남원지역 시민팀이 해학적으로 준비한 전통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춘향제 길놀이

만의 개성있고 풍부한 스토리로 흥 겨운 마당이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, 유아와 어린이도 함께 즐길 수 있도 록 환상적인 버블카 행렬의 비누방 울쇼와 춘향캐릭터 대형 퍼레이드카 를 특별 제작하여 볼거리를 제공하 고, 어른들을 위한 막걸리 수레를 운 영하여 시민들과 시원한 막걸리 및

/정리: 남원=유영철 기자



길놀이 퍼레이드를 준비 중인 청

이번 길놀이 행사는 지난해 창작 춘향제 놀이마루 사업을 통하여

간식을 나눌 예정이다.



아십니까?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



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.



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.



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.



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.

